

# ‘조용한 괴물’들이 온다... 포르쉐도 할리도 ‘전기모터 시대’

(할리데이비스)

연료를 태우며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모터를 돌리며 운행하는 전기차에 이어 오토바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행거리는 물론 실내공간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오토바이로 확대되고 있다.

7월 업계에 따르면 할리데이비스, 폴라리스 등 오토바이 간판 브랜드들이 전기 오토바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할리데이비스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의 벤처업체인 엘터 모터스에 투자한 뒤 내년 중 전기 오토바이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의 인디언 모터사이클스도 할리데이비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기존에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한 기업들은 있었지만 간판 브랜드의 합류로 시장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슈퍼카 브

글로벌 모터사이클 브랜드

전기오토바이 출격 준비

포르쉐 내년 출시 ‘타이칸’

15분 충전에 400km 주행

랜드들이 합류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포르쉐와 페라리급 슈퍼카 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올 초부터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전기차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페라리 최고경영자도 전기 슈퍼카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 초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페라리 CEO는 “전기 슈퍼카가 있다면 페라리가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사람들이 테슬라 전기차를 보고 놀라워 한다”면서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르쉐는 내년 순수 전기차 모델 ‘타이



제네시스 에센시아 콘셉트카.

칸’의 출시를 앞두고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포르쉐 타이칸은 2개의 PSM 모터를 장착해 최고출력 600마력을 발휘하며,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 1회 완충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타이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5초 미만이 소요되며, 특수 제작된 800V 충전기를 통해

만 15분 만에 400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올리버 블루메 포르쉐 AG 이사회 회장은 “포르쉐는 브랜드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회가 될 주요 과제에 전기화, 디지털화 및 연결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차 타이칸을 시장에 선보이며, 미래

형 E-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 3월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전기 슈퍼카 ‘에센시아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에센시아 콘셉트카는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인 동적인 우아함을 재해석한 세련된 디자인과 향후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될 미래 기술력의 비전을 담았다.

현대차는 에센시아 콘셉트에 제로백 3초대라는 스포츠카 수준의 주행 성능 비전을 담았으며 인공지능 및 각종 커넥티비티 기술을 통한 운전자와 자동차, 교통 인프라 등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가 연결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적 규제에 의해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도 친환경 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오토바이 시장도 전기 오토바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셀트리온, 英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신청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CT-P17’

셀트리온은 최근 영국 의약품 허가 기관(MHRA)에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CT-P17’의 임상시험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영국에서 안전성과 약동학 평가를 위한 1상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한편 2018년 8월부터 유럽 등 8개 국가의 약 75개 사이트에서 글로벌 임상 3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3상 임상 완료 목표라고 있다.

‘CT-P17’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애브비의 ‘휴미라’는 류마티스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지난해 매출 약 20조원을 기록한 글로벌 매출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CT-P17’을 오리지널의약품의 변화된 고농도 제형에 따라 개발함으로써 이미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허가받은 경쟁 바이오시밀러와 차별화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CT-P17 임상 완료 후 이미 유럽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의 52%를 점유한 램시마, 2019년 허가를 목표로 임상 중인 램시마 SC와 더불어 TNF- $\alpha$  억제제 제품군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TNF- $\alpha$  억제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추경 출자사업 최종 선정결과)

단위: 억원·개

계정	분야	공고내역		신청내역		최종선정				
		모태출자(A)	결성목표	조합수	출자요청(B)	경쟁률(B/A)	조합수	출자요청	결성목표	
혁신모형	창업초기	일반	1,180~1,480	1,967~2,467	18	2,310	-	8	1,200	2,000
		루키*	200~500	333~833	11	1,325	-	4	480	800
		소계	1,680	2,800	29	3,635	2.16:1	12	1,680	2,800
	혁신성장	1,120	2,800	6	2,440	2.18:1	2	1,000	2,520	
합계		2,800	5,600	35	6,075	2.17:1	14	2,680	5,320	

\*신설창투사와 LCC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선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추경펀드’ 운용할 벤처캐피탈 14곳 선정

중기부 총 5320억원 규모

동문파트너즈, 이앤벤처파트너즈,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등 14개 벤처캐피탈(VC)이 8월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532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운용사로 뽑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스타트업들에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14개 VC는 모태펀드 자금 2680억원에 민간자금을 매

칭해 올해 11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선 출자예산 대비 루키리그(신설창투사, LLC 제한경쟁)에 우수 운용사들이 많이 지원, 배정된 1680억원 중 480억원이 루키리그에 선정됐다. 당초 루키리그에는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또 창업초기펀드는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지방투자 의무를 부여했지만 2개 VC가 지역투자 의무를 30%로 상향해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펀드를 통해 595억원 이상이 지방기업에 투자돼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활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롯데푸드 신사옥 이전... ‘통합경영 시대’ 선포

양평동 신사옥으로 통합 이전

업무시너지·경영효율 향상 기대

롯데푸드가 본사 사무실을 한곳에 모아 통합 경영 시대를 언다.

롯데푸드는 지난 6일 본사를 통합 이전하고 입주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푸드는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10(영등포구 양평동 5가 21번지)에서 영등포구 양평로 19길 19(양평동 4가 23-2번지)로 본사를 이전했다. 신사옥은 구(舊) 롯데중앙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9층 건물로 기존 본사에서 한 블록 가량 떨어진 위치다.

기존에 롯데푸드는 양평동 롯데양평빌딩 3개층과 근처 빌딩 등에 일부 부서가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한 지붕 아래로 불러 들이게 됐다. 롯데푸드는 이번 이전을 통해 업무 시너지를 높이고 경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롯데푸드 신사옥은 대지면적 4360㎡(1319평), 연면적 1만7475㎡(5295평) 9층 건물로 기존 롯데푸드가 사용하던 사무공간보다 2배가량 넓다. 한층 넓어진 공



지난 6일 롯데푸드 사옥 이전식에서 이영호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롯데푸드



롯데푸드 신사옥 전경. /롯데푸드

간을 제품개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옥 1층에 푸드 솔루션 센터, 쿠킹스튜디오, 유지연구 BETERA, 커피LAB 등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개발실’을 추가해 국내 대표 종합식품회

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또한 ‘안전 경영 실험실’을 마련해 식품 안전 관리 역량도 높였다.

직원 친화적인 부분도 강화했다. 각 층마다 직원 휴게실을 마련하고, 따로 5층과 7층에는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와 라이브러리를 배치했다. 여직원 휴게실과 직원 식당도 따로 마련했다. 1층에는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로비 및 접견실을 배치해 고객 친화성도 높였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본사 이전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며 “향후 통합 신사옥에서 국내 대표 종합식품회사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휴온스

어린이 해열제 ‘이지쿨 시럽’

휴온스가 ‘덱시부프로펜(Dexibuprofen)’ 계열의 스틱형 어린이 해열제 ‘이지쿨 시럽(사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지쿨 시럽’은 빠른 해열 효과와 긴 약물 지속 기간이 장점인 ‘덱시부프로펜’ 계열의 어린이 해열제로, 휴온스만의 ‘용해성 및 안정성이 향상된 덱시부프로펜 시럽 제제’에 대한 특허기술(출원번호: 10-2018-0013506)을 적용해 기존 덱시부프로펜 시럽의 복용 시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 /박인용 기자



## 바이오일레븐 아이 면역력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 출시

바이오일레븐이 성장기 유소아 어린이의 장 면역력 강화를 위해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사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은 어린이 전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서, 생후 13개월 이상 유소아의 장내 환경을 고려해 장 정착력과 생존력이 강한 락토바실러스 4종과 비피더스 3종 등을 함유했다. 매일 공복 상태에서 1회 1포를 물이나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스틱형 분말 타입이라 휴대와 보



관이 간편하고, 제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천연 바닐라향을 담아 섭취가 용이하다.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은 식약처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장 면역을 조절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개별 인정받은 ‘드시모네 포뮬러’를 원료로 한다.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 제품은 드시모네 공식 사이트와 11번가, GS샵, 롯데닷컴 등 주요 온라인몰을 비롯해 현대백화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